

경력신입

대외활동

기간	구분	기관/장소	내용
2019.09.04 ~ 2020.03.03	교육이수 내역	한국기술교육직업전문학교	빅데이터기반 자바(JAVA) 프로그래밍 전문가 과정
2018.06 ~ 2018.10	교육이수 내역	한국 세라믹 기술원	첨단 신소재 인력 양성과정
2018.06.23 ~ 2018.07.11	교내활동	경상대학교 LINC 사업단	GPP (Global Pioneer Program) - 4 차 산업혁명을 이끌 스마트 센서 기술
2018.05 ~ 2018.12	동아리	과 창의동아리	근전도 센서를 직접 설계 및 제작해보기
2017.01 ~ 2017.05	해외연수	미국	해외 어학연수 (교내)
2016.03 ~ 2016.12	교내활동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진주 지방방사능측정소	연구보조원
2015.03 ~ 2015.06	동아리	과 동아리	발명동아리

자격증/어학/수상내역

취득일/수상일	구분	자격/어학/수상명	발행처/기관/언어	합격/점수
2017.01	수상내역/공 모전	2016 LINC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 회 은상	경상대학교	-
2018.09	어학시험	TOEIC	영어	825 점 /PASS
2018.09	어학시험	TOEIC Speaking Test	영어	140 점/6 급
2018.01	자격증/면허 증	자동차운전면허	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 리단)	최종합격

보유기술

보유기술명/수준/상세내용
CSS3
JSP 2.5 / 상 servlet(3.1)
Apache Hadoop / 하
Cloudera / 중
ORM / 상

JavaScript / 중 jquery
HTML5 / 상
C++ / 중
Linux / 중 CENTOS, UBUNTO
Spring Framework / 상
Java / 상
MY-SQL / 상

자기소개서

[성장과정]

프로그래밍 언어만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구현할 수 있다는 매력에 빠져 웹 개발자가 되기 위해 1 주일에 3 번 정도는 밤늦게까지 남아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였습니다.

창의적 물리연구종합설계 1, 2 과목에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자연과학보다 공학 분야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분야는 3D 설계 및 3D 프린팅, 회로도 설계,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주로 맡았던 것은 흥미롭게 이수했었던 컴퓨터 물리 및 실습 과목에서 C++을 배운 것을 응용하여서 할 수 있는 아두이노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졸업한 후 개발분야로 취업하기에는 지식의 깊이와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깊이를 쌓기 위하여 한국기술교육직업전문학교의 빅데이터기반데이터기반 자바(JAVA) 프로그래밍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기술교육직업전문학교의 빅데이터기반 자바(JAVA) 프로그래밍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며 영화를 예매하거나, 학교 학생관리 사이트, 네이버 사이트 등 여러 사이트들을 보며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런 사이트들을 만들어보고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고 파이널 프로젝트 주제로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숙박 사이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직접 프로젝트를 하며 지도 api 를 처음 접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처음 접하는것도 많았지만 완성된걸 보았을때는 컴퓨터 상

에서 문자로 표현했던 것이 웹사이트의 화면을 전환하고, 정보를 제어하는것에 큰 매력을 느껴 꼭 웹 개발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저는 적극적인 성격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며 이 경험으로 얻은 도전정신으로 해보지 못한 어려워 보이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주제를 정하여 해외의 기업이나 연구소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인 GPP(Global Pioneer Program)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센서기술을 주제로 참여하였습니다. 지원서를 쓰기 위해서는 주제와 견학 내용과 관련된 서류들, 교수님의 추천, 팀원 소개서, 일정별 견학 계획서, 예산 소요 내역서, 사전 준비 내역서, 방문 기관의 방문 승인 내역 등을 제출하고 PPT를 만들어 발표해야 하는 준비가 많이 필요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메일을 보내도 답장이 잘 오지 않아 쉽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이 3일이 되는 날 컨택이 된 회사나 연구소는 한 군데도 없어 포기하려던 팀원도 있었지만, 저희 팀은 일과를 마치고 회의를 하였습니다. 회의를 통하여 우리의 상황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회의를 통해 기업들은 대부분 연락이 오지 않았고, 기업체보다 대학 연구소나 국가기관의 연구소에서는 답장이 잘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구소를 중점으로 메일을 보내기로 하였고 시간이 촉박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지원서를 제출 마감 하루 전날 컨택이 모두 완료되어 지원서를 쓸 수 있게 되었고 팀장으로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제시한 안에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갖춰 제출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우리 팀이 선발되어 Sensor+Test conference, 취리히 공대의 연구실 등 몇몇 대학의 연구소를 견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저에게 있어 실패할 가능성이 컸지만, 원인을 분석하여 새로운 방향을 시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전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어 끝까지 해보자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정신으로 해보지 못한 어려워 보이는 일이어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